

# ‘갑약재’ 安, 일시멈춤 사고 수습 주력...야 단일화에 변수?

부인 코로나·유세 버스 사망사고  
광주·전남북 유세 전면 중단  
28일 데드라인 거론 속  
尹 조문때 담판 회동 물꼬 관측도

‘유세용 버스 사망사고’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이 중단됐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안 후보가 최대 위기에 몰리고 있다. 16일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예정된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남 12명, 전북 8명의 유세 인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유세용 45인승 버스도 준비, 주요 지점을 돌며 안철수 후보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날 중앙당 방침에 따라 지역 선거 운동 일정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안 후보로서는 중앙선거위 후보등록 당일,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부

부 유세’에 제동이 걸리는데다 공식선거전 첫날엔 ‘유세버스 사망사고’라는 예상 밖 비보까지 접하게 됐다. 지난 15일 저녁 무렵 사고 소식을 접한 안철수 후보는 16일 새벽까지 사망자 2명의 빈소가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잇달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안 후보는 자신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뛰던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데 대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안 후보는 며칠간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사고 원인 규명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기로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검 때문에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상태로, 빈소가 차려지면 안 후보가 다시 가볼 것”이라며 “마냥 선거운동을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은 유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유세 재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발인을 한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빨라야 이번 주말에야 선거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3일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봤다. 공교롭게도 선관위 후보등록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진 날이었다.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남편의 지역 일정에 빠짐없이 동행하곤 했던 김 교수가 선거운동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안 후보로서는 타격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 제의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료봉사 활동 등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아내에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 교수의 퇴원 날짜는 미정인 상태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 후보와 함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 예기치 못한 약재가 한꺼번에 돌출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에도 ‘블썸’이 될 모양새다.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오는 28일이 단일화 협상의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뚫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역설적으로 윤 후보가 이날 저녁 빈소를 조문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후보 간 ‘담판 회동’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저

녁에 조문을 오겠다고 미리 알려줬다”며 “조문을 오는 건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이 자리가 정치적인 대화를 할 자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현대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호남 돌며 개혁 강조...이재명과 차별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호남 지역을 돌며 양극화를 줄이는 등 진보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한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차별화에도 사동을 걸었다. 심 후보는 1박 2일 호남 일정 이틀째인 16일 아침 노란색 패딩과 마스크를 쓰고 전남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공장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했다. 유명 시가지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대신 공장 앞을 택해 정의당 지지층이기도 한 노조 표심을 모으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이후 목포시로 이동해 목포 동부시장에서 거리유세를 하면서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도 시도했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로, 공공기관은 7배·민간기업은 30

배 제한하는 등 일명 ‘살전고양이법’을 공약했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삼성 물라벌, 시진핑 미소법이라며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이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심 후보는 오후에는 여수시로 옮겨가 여수 폭발 사고 산업단지 희생자 빈소를 조문했다. 뒤이어 사고 대책위원회를 방문하면서 1박 2일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논의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강조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나를 위해 이재명’ 對 ‘아파트’ ...여야 로고송 눈길

민주, 아모르파티 등 10곡  
국힘, 찰랑찰랑 등 15곡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로고송 경쟁에도 눈길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로고송은 총 10곡이다. 대표적으로는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와 이찬원의 ‘진도배기’, 모모랜드의 ‘뽀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김수희의 ‘남행열차’, 소찬휘의 ‘tears’, 유성석의 ‘질풍가도’, 라붐의 ‘상상더하기’ 등을 택했다.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겠다는 구상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선대위가 자체 제작한 두 곡인 ‘Be with you’와 ‘나를 위해 이재명’을 더했다. 이 후보의 테마곡이기도 한 ‘나를 위해 이재

명’은 윤하의 ‘비밀번호 486’, 김종국의 ‘한 남자’ 등을 작곡한 황찬희 작곡가의 작품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택한 로고송은 전반적으로 빠른 박자에 밝은 분위기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오미크론으로 자칫 침체화될 수 있는 선거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활용하는 선거 로고송은 총 15곡이다. 영탁의 ‘찐이야’, ‘찰랑찰랑’, 마마무의 ‘HIP’ 등 전통적으로 로고송으로 사용된 트로트와 댄스 장르가 9곡이다. 이중 윤수일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선정됐다. 1982년 발매된 이 곡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최근 종료돼 로

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잔잔한 멜로디의 발라드와 포크송도 함께 선정됐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서정적인 노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려 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될꺼니까’, ‘Everybody Fighting’, ‘KOREA’ 등 지난해 개최한 로고송 공모전에서 수상한 곡도 공식 로고송에 포함됐다. 국민이 만든 곡을 로고송으로 채택해 당과 국민이 함께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 사망 사고에 애도를 표하는 의미로 이날 하루 로고송을 틀지 않고 울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서 이재명-윤석열 지지 경쟁

공식선거 운동 이틀째를 맞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경쟁이 이어졌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광주 지역 정치인들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까지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남달리 헌신했다”며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정배·최경환 전 국회의원, 김성환 전 동구청장, 박춘수 전 광주시의원, 홍기일 동구의원, 김수영·김옥수 서구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 한의업계 종사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국민 건강과 방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 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지지를 선언했

다. 광주 각계로 구성됐다는 ‘호남공정시민연대’(상임대표 고광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소송 남발 세금 낭비, 조폭과의 연계 의혹, 마구잡이식 내 편 인사 등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킬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 상담 010-3675-7592